

화답송

(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)

(2016. 8. 6.)

함병일
시편 97(96),1-2.5-6.9(© 17과 97)

(후렴) 주 님 은 임 금 이 시 다 온 땅 위 에 지 극 히 높 으 신 분 이 시 다

1. 주님은 임금이시 다. 땅은 즐거워하고,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.
2. 주님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 네.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 네.
3. 주님, 당신은 온 땅위 에 지극히 높으신 분,

1. 흰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,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 네.
2.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 리고,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 보 네.
3. 모든 신들 — 위 에 아득히 높으시옵니 다.

D.C.

주)